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교유대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장은애* · 정현희**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교유대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한 K초등학교 학생 156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1차(초5), 2차(초6), 3차(중1)자료를 1년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이전 시점의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은 각각 이후 시점의 또래애착과 학교유대감,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시점의 또래애착은 이후 시점의 학교유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전 시점의 학교유대감은 이후 시점의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유대감은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이 학교유대감을 매개로 하여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또래애착은 학교유대감을 완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의 학교유대감에 대해 연구자들은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개입과 예방 시 학교에서 교사 및 교우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의 우울의 예방과 개입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초기 청소년,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상담 박사수료, 제1저자

**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교신저자, hhchung@kmu.ac.kr

I. 서 론

청소년 초기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발달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호르몬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신체, 인지, 정서 발달, 자기개념 및 대인관계의 변화를 한꺼번에 겪게 된다(Santrock, 2011). 또한 이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권석만, 2016). 더욱이 초기 청소년은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함께 중학교 진학이라는 환경의 변화까지 겪게 되면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정현희, 2016). 초기 청소년이 겪는 부적응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비행과 학업중단, 흡연 등의 외현화 문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김연희, 김선숙, 2008; Bhatia & Bhatia, 2007).

우울은 초기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부적응 중에서 가장 빈번히 발견되는 심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Wicks-Nelson & Israel, 2014). 실제로 청소년 초기에는 우울이 급격히 증가하고,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현희, 2005; Way, Reddy & Rhodes, 2007). DSM-5에 따르면 우울은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과 즐거움의 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장애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청소년의 우울은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 동기 저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초기 청소년들은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하여 우울을 간과하기가 쉽고 자발적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기 청소년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적 요인(Hankin, 2015), 가정적 요인(강승희, 2010), 대인관계적 요인(Rudolph, 2008), 학교 요인(Pössel, Rudasill, Sawyer, Spence & Bjerg, 2013; Wang, Brinkworth & Eccles, 2013)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Cicchetti와 Toth(1998)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감안할 때 대인관계 요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Renouf와 Harter(1990)는 청소년의 92%가 청소년 우울의 원인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주제가 담긴 사건들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 초기에는 아동기보다 대인관계를 맺는 대상이 증가하게 된다(Giordano, 2003). 특히 또래관계는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보다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이미숙, 민하영, 2013; 유순화, 2007). 따라서 또래나 친구는 청소년의 삶에 일상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유혜경, 남현우, 2010). 또래와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또래 간의 친밀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며, 이러한 소외감은 초기 청소년의 우울로 연결되기도 한다.

또래애착(peer attachment)은 또래와의 접근성을 유지하고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민하영, 2012).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애착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문수정, 백지숙, 2016). 같은 맥락에서 또래의 거부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까지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Lev-Wiesel & Sternberg, 2012). Herres와 Kobak(2015)도 부정적인 또래와의 경험은 초기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또래애착이 낮으면, 또래와의 관계가 어렵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또한 Way, Reddy와 Rhodes(2007)의 중단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의 지지가 감소할수록 우울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귀숙과 정현희(2006)도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는 우울로 인한 부정적인 발달 결과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환기를 포함한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 교사 및 또래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애착과 우울에 대한 중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학교유대감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Juvonen, 2006; Oldfield et al., 2015). 학교유대감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고 학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Millings et al., 2012). 또한 Whitlock(2006)은 학교유대감이 학교소속감과 학교만족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래애착과 학교유대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Armsden와 Greenberg(1987)는 또래애착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높은 학교출석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서주현과 유안진(2001)은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석진 등(2011)도 또래애착이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높이고 행복감, 소속감 등을 형성하는데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또래애착은 학교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학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McLaughlin & Clarke, 2010), 학교생활 적응과 더불어 학교에 대한 친밀감, 즉 유대감을 향상시키는데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학교유대감(school connectedness)의 역할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Joyce & Early, 2014). 개인-환경 부합이론(stage-environmental fit theory)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경험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부적응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Eccles & Roeser, 2011). 따라서 낮은 수준의 학교유대감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높은 수준의 학교유대감은 학교적응을 도우며 학교 부적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Monahan, Oesterle & Hawkins, 2010).

학교유대감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Shochet 등(2006)은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유대감이 1년 이후에 청소년의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Shochet, Dadds, Ham과 Montague(2006)의 종단연구에서도 학교유대감이 높을수록 이후 우울 증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종단연구에서 정현희(2016)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초기 청소년이 겪는 우울이 높을수록 학교유대감이 낮아지기 보다는 학교유대감이 낮을수록 우울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학교유대감은 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학습동기와 관련된 변인으로 연구되었고(Blum et al., 2004; Niehaus, Rudasil & Rakes, 2012), 청소년의 비행과 같은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었으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하였다(Monahan et al., 2010). 학교유대감과 우울 간의 국내연구 또한 부족하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적어도 연간 9,000시간으로, 학교환경에서 일어나는 친밀한 관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왕따, 학교 등교 거부 문제 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유대감에 대한 국내 연구는 또래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 또래상담 등과 더불어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학

생의 등교거부 등 행동적인 문제와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애착, 또래애착 등 관계적인 입장에 초점을 둔 학교유대감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 연구와 다르게 일부 국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과 초기 청소년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교유대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Shochet와 Smith(2014)는 학교유대감이 학급 안의 심리적 환경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uvonen(2006)은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학교유대감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학교유대감이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을 제안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Waters, Cross와 Runions(2009)는 가족, 교사 및 또래와 같은 대인관계 요인이 학교유대감과 관계가 있으며, 학생의 학교유대감을 높임으로써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낮출 수 있다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두 모델은 모두 개념적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실증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래애착이 학교유대감을 통해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 두 모델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유대감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초기 청소년의 우울의 예방과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학교유대감에 대한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교유대감을 확인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접근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개효과는 측정된 변인들 간의 시간 간격을 확보하여야 그 효과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단적인 분석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Selig & Preacher, 2009).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학교유대감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통해 초기 청소년이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서 학교유대감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Juvonen(2006)와 Waters, Cross와 Runions,(2009)의 모델을 토대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학교유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유대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학교유대감을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중단적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전환되는 초기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개입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은 각각 이후 시점의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또래애착은 이후 시점의 학교유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학교유대감은 이후 시점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학교유대감은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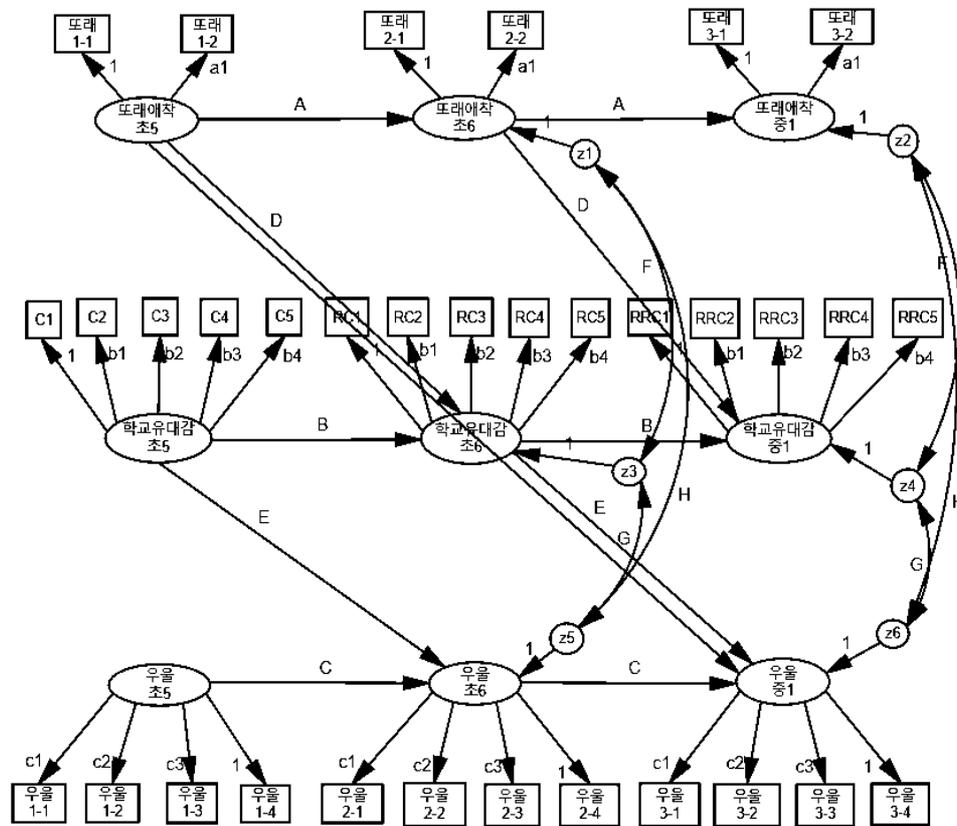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소재한 K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1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교의 교장에게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에 학생들의 연구 참여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 후 설문조사는 각 학년의 1학기 말에 이루어졌으며, 1명의 비담임 교사가 각 학급에 들어가서 설문조사의 취지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즉, 1차년도 자료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2차년도 자료는 초등학교 6학년, 3차년도 자료는 중학교 1학년이다. 1, 2차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 206명(남학생 98명, 여학생 108명)이었다. 3차년도 자료는 학교 환경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1, 2차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 동일한 중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중학교로 진학하게 된 학생 44명과 기본 정보가 누락되어 확인할 수 없었던 학생 6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에, 총 학생 156명(남학생 68명, 여학생 8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또래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Raja, McGee와 Stanton(1992)이 축약하여 타당화하고 정현희, 구경미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각 신뢰감(4문항), 의사소통(4문항), 소외(4문항)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 하위 요인 중에서 의사소통(4문항)과 신뢰감(4문항) 하위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대상과 높은 의사소통과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aja 등(1992)의 연구에서 측정된 또래애착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0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1차년도 .81, 2차년도 .85, 3차년도 .88이었다.

2) 학교유대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청소년 건강 종단연구(McNeely, Nonnemaker & Blum, 2002; Resnick et al., 1997)의 학교유대감 척도(School Connectedness Scale)를 정현희(2016)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미국인 교수의 역번역을 통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게 행복하다.”, “나는 우리 학교의 일부라고 느낀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한다.”, “나는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와 같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행복감과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유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Furlong, O'Brennan과 You(2011)의 연구에서 측정된 학교유대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2~.85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1차년도 .85, 2차년도 .78, 3차년도 .84이었다.

3)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통합적 한국판 역학조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Radloff (1977)가 개발하여 국내의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정서(4문항), 대인관계(4문항), 우울정서(8문항), 신체기능 저하(4문항)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 빈도에 따라(0점=극히 드물게~3점=거의 대부분)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 요인의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하여 점수처리를 하였다. 전경구

등 (2001)의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1차년도 .82, 2차년도 .92, 3차년도 .91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교유대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분포와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전체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3년의 걸친 종단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완전임의 결측(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의 가정 하에 EM (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하였다. 3년에 걸친 종단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측치를 모두 무시하거나 제거하면 연구결과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Gad & Ahmed, 2006). 그러므로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 방식은 모형에 기반을 두고 결측치를 대체하여 불완전한 데이터의 평균과 공분산 값을 최대우도법을 통해 추정한다. 데이터가 안정적인 값으로 수렴될 때까지 두 단계를 무한 반복하게 된다(Kline, 2015).

셋째,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교유대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예측해 보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변인들 간에 갖는 회귀계수의 동일성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을 3년간 측정한 종단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경로별로 다른 동일성 제약을 가한 12개 모형들 간의 χ^2 과 CFI와 TLI, RMSEA 지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및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한 후 최적모형에 대한 구조계수를 확인함으로써 연구변인들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1
기술통계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N=15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1								
초 5	②	.465**	1						
	③	-.361**	-.309**	1					
초 6	④	.376**	.331**	-.296**	1				
	⑤	.316**	.337**	-.336**	.606**	1			
중 1	⑥	-.252**	-.265**	.412**	-.531**	-.652**	1		
	⑦	.279**	.135	-.228**	.479**	.267**	-.234**	1	
중 1	⑧	.276**	.228**	-.269**	.422**	.421**	-.325**	.616**	1
	⑨	-.160*	-.121	.335**	-.331**	-.361**	.415**	-.514**	-.559**
평균	30.02	19.44	8.54	32.42	20.34	9.23	31.59	20.13	10.29
표준 편차	6.45	4.20	6.44	5.85	3.50	8.34	6.09	3.23	8.34
왜도	-.28	-1.06	.76	-.51	-.48	2.27	-.57	-.16	.99
첨도	-.64	1.76	-.04	-.20	-.43	7.55	.27	-.64	.37

주. ①또래애착(초5) ②학교유대감(초5) ③우울(초5) ④또래애착(초6) ⑤학교유대감(초6)
⑥우울(초6) ⑦또래애착(중1) ⑧학교유대감(초6) ⑨우울(중1).

* $p < .05$. ** $p < .01$.

초기 청소년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서 중학교 1학년시기까지 측정된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정규 분포성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왜도와 첨도는 모든 변인의 왜도(-.57~.99)와 첨도(-.64~7.5)의 절댓값이 각각 3과 10을 넘

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여(Kline, 2011),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여 연구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한편, 또래애착과 학교유대감, 그리고 우울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시점에서 또래애착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교유대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학교유대감과 우울도 모든 시점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교유대감의 중단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측정 동일성, 구조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 제약을 가한 12개의 모형 중에서 모형 1과 모형 2, 모형 2와 모형 3의 비교를 순서대로 모형 1에서 모형 12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모형의 기본적인 적합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χ^2 의 경우 표집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χ^2 검정과 함께 CFI, TLI와 RMSEA를 사용하였다. CFI와 TLI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그리고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의 순서대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경로별로 서로 다르게 동일성 제약을 가한 12개 모형들의 χ^2 과 CFI와 TLI, RMSEA 지수를 비교하였다. 모형을 비교할 때 두 모형의 $\Delta\chi^2$ 의 p 값이 .05보다 작을 때는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Byrne, 2001). 또한 Δ CFI의 값이 .01만큼 작아지거나(Cheung & Rensvold, 2002), Δ TLI값이 .02만큼 작아지거나(Vandenberg & Lance, 2000), Δ RMSEA값이 .015보다 많이 커졌을 때에는 모형의 합치도 지수가 유의하게 나빠졌다고 해석하였다(Chen, 2007).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5% CI)	$\Delta\chi^2$ (Δdf)	p	ΔCFI	ΔTLI	$\Delta RMSEA$	
기저 모형	모형1	654.393	442	.921	.906	.056 (.046-.064)	-	-	-	-	
	모형2	656.590	444	.921	.906	.056 (.046-.064)	2.197 (2)	0.33	0	0	
측정 동일성	모형3	663.986	452	.921	.908	.055 (.046-.064)	7.396 (8)	0.49	0	0.002	-0.001
	모형4	672.002	458	.921	.908	.055 (.046-.064)	8.016 (6)	0.24	0	0	0
	모형5	672.710	459	.921	.909	.055 (.046-.064)	0.708 (1)	0.40	0	0.001	0
	모형6	673.707	460	.921	.909	.055 (.046-.063)	0.997 (1)	0.32	0	0	0
경로 동일성	모형7	675.415	461	.920	.909	.055 (.046-.063)	1.708 (1)	0.19	-0.001	0	0
	모형8	677.047	462	.920	.909	.055 (.046-.063)	1.632 (1)	0.20	0	0	0
	모형9	678.223	463	.920	.909	.055 (.046-.063)	1.176 (1)	0.28	0	0	0
	모형10	678.301	464	.920	.909	.055 (.045-.063)	0.078 (1)	0.78	0	0	0
오차 공분산 동일성	모형11	682.489	465	.919	.908	.055 (.046-.064)	4.188 [*] (1)	0.04	-0.001	-0.001	0
	모형12	685.474	466	.919	.908	.055 (.046-.064)	2.985 (1)	0.08	0	0	0

* $p < .05$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기저모형인 모형1이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측정 동일성(모형2~모형4), 경로 동일성(모형5~모형9), 오차공분산 동일성(모형10~모형12)의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모형 2, 3, 4인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 측정변인들의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하여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으로 각각 모형의 차이는 $\Delta\chi^2$ 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ΔCFI , ΔTLI 와 $\Delta RMSEA$ 의 적합도에서 그 차이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또래애착 변인의 시간에 따른 관계성의 측정 동일성이 성립하였다. 즉, 시간에 따라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 변인들의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어, 측정변수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들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이전 시점의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 잠재변수가 이후 시점의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 잠재변수 간의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이전 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또래애착, 학교유대감과 우울 경로 동일성 모형 5, 6, 7도 $\Delta\chi^2$ 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ΔCFI , ΔTLI 와 $\Delta RMSEA$ 가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아서 동일성 제약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래애착 잠재변수가 이후 학교유대감 잠재변수에 주는 효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또래애착에서 학교유대감으로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 조건을 추가한 모형 8, 9인 또래애착에서 학교유대감으로의 교차회귀계수의 경로 동일성과 학교유대감에서 우울로의 교차회귀계수의 경로 동일성 또한 적합도의 변화도 그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학교유대감에서 우울로의 교차회귀계수 경로 동일성도 충족되었다.

모형11과 모형 10을 비교한 결과는 $\Delta\chi^2(4.118, df=1, p=.040)$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Delta CFI=.919$, $\Delta TLI=.908$ 와 $\Delta RMSEA=.055$ 으로 적합도에서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아 학교유대감에서 우울로의 교차회귀계수도 시간 경과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저모형1, 측정 동일성(모형2~3), 경로 동일성(모형 5~9), 오차 공분산 동일성(모형10~12)의 적합도 비교를 순차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간명한 모형인 모형 12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모형 12의 적합도는 $\Delta CFI=.919$, $\Delta TLI=.908$ 와 $\Delta RMSEA=.055$ 로 수용할 만한 수준을 나타냈다.

3. 연구모형과 최종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에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또래애착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효과를 0으로 고정하여 완전 매개 검증하여 적합도를 비교하였다(박현정, 이진실, 2013). $\Delta\chi^2$ 검증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423$), $\Delta CFI=.919$, $\Delta TLI=.908$ 과 $\Delta RMSEA=.055$ 으로 두 모형 간의 적합도도 차이가 없어서 표 3에 제시한 것 같이 더 간명한 완전 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3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5% CI)	$\Delta\chi^2$ (Δdf)
부분매개모형 (모형12)	685.474	466	.919	.908	.055 (.046-.064)	-
완전매개모형 (최종모형)	686.115	467	.919	.908	.055 (.046-.064)	0.641 (1)

4.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의 종단적 관계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 추정치	C.R.
학교유대감(초6)	← 또래애착(초5)	.190	.062	.211	3.035**
또래애착(초6)	← 또래애착(초5)	.445	.060	.454	7.363***
우울(초6)	← 우울(초5)	.262	.077	.159	3.418***
학교유대감(초6)	← 학교유대감(초5)	.249	.060	.306	4.120***
우울(초6)	← 학교유대감(초5)	-.119	.040	-.228	-2.973**
우울(중1)	← 학교유대감(초6)	-.119	.040	-.180	-2.973**
우울(중1)	← 또래애착(초5)	.038	.046	.064	.814
학교유대감(중1)	← 또래애착(초6)	.190	.062	.220	3.035**
또래애착(중1)	← 또래애착(초6)	.445	.060	.440	7.363***
학교유대감(중1)	← 학교유대감(초6)	.249	.060	.265	4.120***
우울(중1)	← 우울(초6)	.262	.077	.255	3.418***

본 연구에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위 표 4와 같았다. 또한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모형의 경로도와 경로계수는 아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또래애착과 학교유대감 및 우울의 경로계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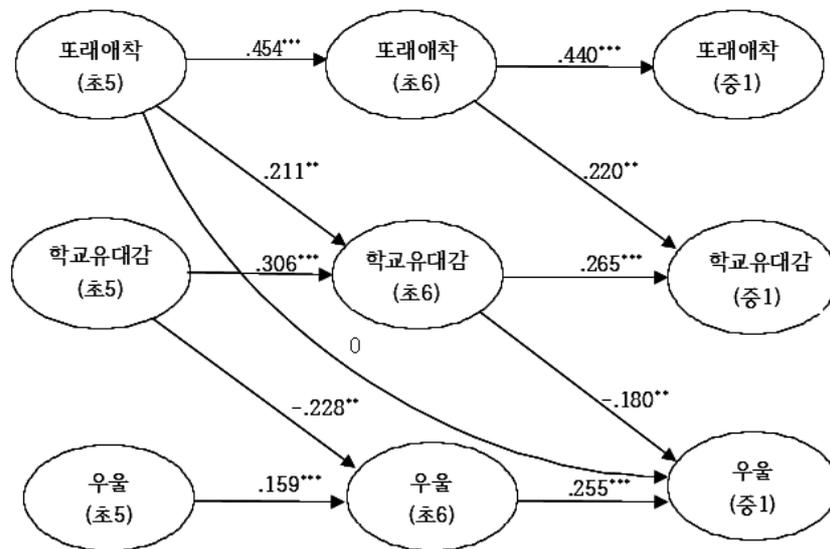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 $p < .01$, *** $p < .001$

첫째, 또래애착 및 학교유대감 및 우울의 자기회귀효과는 동일한 잠재변인 간의 자기회귀계수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및 우울이 이후 시점의 또래애착과 학교유대감,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며 시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또래애착과 학교유대감은 모든 경로에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우울의 2차년도→3차년도 자기회귀계수(.255)가 1차년도→2차년도 자기회귀계수(.15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또래애착이 학교유대감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높은 학교유대감 수준이 예측되었고,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높은 학교유대감 수준이 예측되었다.

셋째, 학교유대감이 우울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학교유대감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우울이 낮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유대감이 높을수록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유대감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또래애착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개효과는 Sobel(1982)의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산출된 Z의 절대값이 1.96보다 클 경우에 간접효과($a \times b$)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산출된 결과,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또래애착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의 관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유대감의 중단적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 = -2.134$, $p = .032$, $p < .05$).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또래애착이 높은 초기 청소년은 학교유대감이 높고, 이는 학교유대감을 매개로 하여 초기 청소년의 우울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Juvonen(2006)과 Waters 등(2009)의 개념적 모델연구를 토대로 초기 청소년 시기에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학교유대감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며, 연구자료는 1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수집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와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은 각각 이후 시점의 또래애착, 학교유대감과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의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이 높을수록 각각 이후 시점의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또래애착이 중요해짐을 밝힌 배민영(2017)의 연구결과와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또래애착이 점차적으로 높아졌다는 노보람 등(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 모든 시점에서 또래애착은 지속적으로 우울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수정과 백지숙(201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Loukas 등(2009)이 청소년 초기에 지각한 학교유대감이 안정적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Whitlock(2006)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에도 불구하고 학교유대감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이 일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또래애착, 학교유대감, 우울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기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과 학교유대감의 자기회귀계수와 달리 우울의 자기회귀계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이보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서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청소년들의 우울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 발현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한 신민정 등(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진학 후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시기의 우울은 이후 시점인 중학교 시기의 우울로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중학교 진학 후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조기개입과 예방이 중요하며, 중학교 진학 후에는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 시점의 또래애착은 이후 시점의 학교유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회귀계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시기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학교유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애착은 초기 청소년의 학교유대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Juvonen(2006)과 Oldfield 등(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교사 및 또래 등 학교에서 사람들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원동력이라고 본 McLaughlin과 Clarke(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초기 청소년은 또래와의 긍정적인 경험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 학교에 대한 행복감과 소속감까지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학교에 적응하고 있지 못한 초기 청소년들은 또래와 어려움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상담사는 새로운 환경인 중학교에

진화하여서도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학교 부적응을 나타내는 초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긍정적인 또래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이전 시점의 학교유대감은 이후 시점의 우울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유대감이 높을수록 이후의 초기 청소년의 우울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Eccles & Roeser(2011)가 제시한 학교 환경에서의 경험이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개인-환경 부합이론(stage-environmental fit theory)의 가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학교유대감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우울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Joyce와 Early(2014)의 연구결과와 종단연구에서 이전의 학교유대감이 높을수록 이후의 우울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Shochet, Dadds, Ham과 Montague(200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즉, 학교유대감은 초기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Waters, 2009). 그런데 본 연구에서의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사이보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서 교차회귀계수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유대감의 영향력이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진학 이후에 조금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학교 진학이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유대감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면서 환경적인 변화와 함께 상대적으로 이전 시점의 우울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의 우울이 지속될지라도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우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초기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 첫 해에, 우울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교사 및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지지관계가 형성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돕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넷째,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또래애착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접효과를 0으로 고정한 완전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또래애착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유대감을 매개하여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또래애착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유대감을 높이고, 높아진 학교유대감은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

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Juvonen(2006)이 교사 및 또래관계가 학교유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유대감이 학생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모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모델은 교사나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은 학교유대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 유대감이 높은 학생은 다시 교사나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순환과정을 나타낸다. 즉, 또래애착이 학교유대감을 매개로 하여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내는 것은 발달 특성상 많은 변화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의 우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사 및 교우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유대감의 매개효과가 있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또래애착이 우울에 부적인 영향에서 학교유대감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담현장에서 초기 청소년의 우울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교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또래애착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낸 선행연구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문수정, 백지숙, 2016).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또래 관계를 형성과정의 달라지기 때문이며,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또래애착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초기와 중기, 후기 청소년 집단 간의 차이를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발달과정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또래애착은 학교유대감을 완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의 학교유대감에 대해 연구자들은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학교유대감은 초기 청소년이 감정적인 연결고리 즉, 새로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가지고 학교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면 우울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단적 관점에서 또래애착은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래애착이 학교유대감을 매개로 하여 초기 청소년

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학교유대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학교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유대감과 친밀한 관계의 경험이 사회적 공간인 학교에서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은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전 시점의 또래애착이 이후의 중학교 학교유대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당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초기 청소년 상담은 또래관계 프로그램과 또래상담 등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학교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교사 및 학교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Monahan 등(2010)은 초기 청소년의 학교유대감을 높이고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어느 중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비포스쿨(Before School)’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 대한 설명, 동아리 홍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 및 진로설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전환기에 놓인 초기 청소년이 새로 입학하게 되는 자신의 학교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또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 또는 선후배와의 관계 및 학교 안에서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D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로 표본 집단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밝혀진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를 대상으로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또래애착과 우울 간의 학교유대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보는 목적으로 개인 간 개인 내 발달의 변화 차이는 보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 변수에서의 변화와 다른 변수에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김주환 등, 2009)을 함께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을 성별로, 학업성취 등을 포함하여 집단의 차이

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우울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초기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중, 다양한 유형의 부적응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희 (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권석만 (2016). *우울증: 침체와 절망의 늪*. 서울: 학지사.
- 김연희, 김선숙(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 36, 103-127.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보람, 박새롬, 이순형, 박혜준 (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 궤적과 예측요인: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1), 149-177. doi:10.14816/sky.2016.27.1.149
- 문수정, 백지숙 (2016). 청소년기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자아탄력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초기, 중기, 후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3), 149-160.
- 민하영 (2012). 학령기 아동의 모애착과 우울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미치는 매개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915-927. doi:10.5934/KJHE.2012.21.5.915
- 박현정, 이진실 (2013).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중단매개효과 검증: 부모자녀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26(1), 83-106.
- 배민영 (2017).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 변화 양상 및 예측요인. *한국아동교육학회*, 26(2), 207-223.
- 서주현, 유안진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 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성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1(1), 93-114. doi:10.15842/kjcp.2012.31.1.005
- 유순화 (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 355-375.
- 유혜경, 남현우 (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성역할 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6), 215-238.
- 이귀숙, 정현희 (2006). 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유능감,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가

- 학령초기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2), 575-593.
- 이미숙, 민하영 (2013).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자아탄력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1-9. doi:10.7466/JKHMA.2013.31.6.1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 건강*, 6(1), 59-76.
- 정현희 (2005).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적응의 변화 유형. *상담학연구*, 6(2), 573-586.
- 정현희 (2016).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초기 청소년의 학교유대감과 우울의 종단관계 검증. *상담학연구*, 17(2), 281-302.
- 정현희 (2016). 청소년 초기 교사: 학생관계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따른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청소년상담연구*, 24(1), 245-26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hatia, S. K., & Bhatia, S. C. (2007).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American Family Physician*, 75(1), 73-80.
- Blum, R. W., Libbey, H. P., Bishop, J. H., & Bishop, M. (2004). School connectedness: Strengthening health and education outcomes for teenag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4(7), 231-235.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EQS, and LISREL: Comparative approaches to testing for the factorial validity of a measuring instru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esting*, 1(1), 55-86.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icchetti, D., & Toth, S. L.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21-241.
- Eccles, J. S., & Roeser, R. W. (2011). Schools as developmental context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225-241.
- Furlong, M. J., O' Brennan, L. M., & You, S. (2011).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dd Health School Connectedness Scale for 18 sociocultural groups. *Psychology in the Schools*, 48(10), 986-997.
- Gad, A. M., & Ahmed, A. S. (2006).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with intermittent missing values using the stochastic EM algorithm. *Computational Statistics & Data Analysis*, 50(10), 2702-2714.
- Giordano, P. C. (2003).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257-281.
- Hankin, B. L. (2015). Depression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Risk mechanisms across multiple systems and levels of analysi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 13-20.
- Herres, J., & Kobak, R. (2015). The role of parent, teacher, and peer events in maintaining depressive symptoms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2), 325-337.
- Joyce, H. D., & Early, T. J. (2014). The impact of school connectedness and teacher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A multilevel 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9, 101-107.
- Juvonen, J. (2006). Sense of belonging,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functioning. In P. A. Alexander & P. H. Winne (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pp. 655-67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 ed.), New York: Guilford.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 Lev-Wiesel, R., & Sternberg, R. (2012). Victimized at home revictimized by peers: Domestic child abuse a risk factor for social rejectio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9(3), 203-220.
- Loukas, A., Ripperger-Suhler, K. G., & Horton, K. D. (2009). Examining temporal associations between school connectedness and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6), 804-812.
- McLaughlin, C., & Clarke, B. (2010). Relational matters: A review of the impact of school experience on mental health in early adolescence.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7(1), 91-103.
- McNeely, C. A., Nonnemaker, J. M., & Blum, R. W. (2002). Promoting school connectedness: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School Health*, 72(4), 138-146.
- Millings, A., Buck, R., Montgomery, A., Spears, M., & Stallard, P. (2012). School connectednes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ce*, 35(4), 1061-1067.
- Monahan, K. C., Oesterle, S., & Hawkins, J. D. (2010).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school connectedness. *The Prevention Researcher*, 17(3), 3-6.
- Niehaus, K., Rudasill, K. M., & Rakes, C. R. (2012). A longitudinal study of school connectedness and academic outcomes across sixth grad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0(4), 443-460.
- Oldfield, J., Humphrey, N., & Hebron, J. (2015).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school connectedness in predicting adolescent mental health outcome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21(1), 21-29.
- Pössel, P., Rudasill, K. M., Sawyer, M. G., Spence, S. H., & Bjerg, A. C. (2013). Associations between teacher emotion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 in Australian adolescents: A 5-year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9(11), 2135-2146.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Renouf, A. G., & Harter, S. (1990). Low self-worth and anger as components of the depressive experience in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293-310.
- Resnick, M. D., Bearman, P. S., Blum, R. W., Bauman, K. E., Harris, K. M., Jones, J., & Udry, J. R. (1997). Protecting adolescents from harm: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n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10), 823-832.
- Rudolph, K. D. (2008). Developmental influences on interpersonal stress generation in depressed you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3), 673-679.
- Santrock, J. W. (2011).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J. W. Santrock (Ed.), *Life-span development* (pp. 380-408). New York: McGraw-Hill.
- Selig, J. P., & Preacher, K. J. (2009). Mediation models for longitudinal data in developmental research.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6(2-3), 144-164.
- Shochet, I. M., Dadds, M. R., Ham, D., & Montague, R. (2006). School connectedness is an underemphasized parameter in adolescent mental health: Results of a community prediction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2), 170-179.
- Shochet, I. M., & Smith, C. L. (2014). A prospective study investigating the links among classroom environment, school connected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51(5), 480-492.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
- Wang, M. T., Brinkworth, M., & Eccles, J. (2013).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 in adolescent trajectorie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9(4), 690-705.
- Waters, S. K., Cross, D. S., & Runions, K. (2009). Social and ecological structures supporting adolescent connectedness to school: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School Health*, 79(11), 516-524
- Way, N., Reddy, R., & Rhodes, J. (2007). Students' perceptions of school climate during the middle school years: Associations with trajectories of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0(3-4), 194-213. for psychology (2nd ed.). Belmont, CA: Wadsworth.
- Whitlock, J. L. (2006). Youth perceptions of life at school: Contextual correlates of school connectedness in adolesce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0(1), 13-29.
- Wicks-Nelson, R., & Israel, A. C. (2014).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8th ed.). Boston: Pearson.

ABSTRACT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school connectedness on the links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Jang, Eunae* · Chung, Hyunhee*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school connectedness on the links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Data were collected from 156 students attending K elementary school in D metropolitan city at three different time points (T1=elementary school 5nd grade, T2=6nd grade, T3=middle school 1st grad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evious periods of peer attachment, schoo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were experienced were shown to be significantly predictive of subsequent periods of peer attachment, schoo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Second, peer attachment had a significantly static influence on later school connectedness. Third, prior school connectedness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 on depression. Forth, school connectedness showed significant, longitudinal partially mediating effects on the links between peer attachment and depression. The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depression as it is experienced by adolescent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ce, peer attachment, school connectedness, depress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투고일: 2018. 12. 3, 심사일: 2019. 1. 28, 심사완료일: 2019. 2. 8

* Keimyung University